

제5회 광주광역시 창작 희곡 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제5회 광주광역시 창작 희곡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작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 작품

| 구분 | | 작가명 | 작품명 |
|-----|----|---------|----------------|
| 우수상 | 차상 | 양민호(경기) | 청춘, 마음의 끈 한 가닥 |
| | 차하 | 박소현(서울) | 조선인 거리, 광주극장 |
| | | 박숙자(광주) | 그때는 시작에 불과했다. |

□ 시상 안내

- ▶ 일시: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5시 예정
- ▶ 장소: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062)681-4174

□ 심사 총평

문학예술이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으로 이동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광주서구문화원이 광주를 대표하여 해마다 창작희곡을 공모하는 것은 상찬할 만하다.

심사에 올라온 작품들이 모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심사 내내 행복했다. 최대한 좋은 작품, 신인의 기개를 보여줄 작품을 찾으려고 평자는 힘을 다해 작품들을 읽었다. 각 작품마다 대사, 캐릭터, 설정이 다르지만 나름 색깔을 내주어서 기본기를 다 갖추었다고 본다.

극의 형식과 소재는 다양하지만 마지막 원고를 넘길 때마다 아쉬운 점이 남는다. 희곡은 갈등의 예술이다. 고로 반전이 기다려진다. 공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것이 아쉽다. 옥고를 내준 작가들께 박수를 보낸다.

전체 공모작품 27편 가운데 예심을 거쳐 9편이 본심에 올랐다. 올해 5번째 공모전으로 응모작품이 크게 늘었으나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작품은 눈에 띄지 않아 아쉬웠다.

희곡은 대사의 나열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인간관계가 치밀해야 하고 갈등요소와 반전 등 다양한 복선이 깔리면서 관객이 이해하거나 마지막에 그 장면을 깨달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합의하여 ‘대상’은 선정하지 못했다. ‘우수상’에서 차상과 차하로 나누었다. 우수상 차상은 양민호의 ‘청춘, 마음의 끈 한 가닥’, 우수상 차하는 박소현의 ‘조선인 거리, 광주극장’과 박숙자의 ‘그때는 시작에 불과했다’로 하였다.

우수상 차상은 지역색을 드러낸 맛깔나는 대사와 소시민이 살고 있는 생활상을 역력히 드러낸 점은 높이 평가된다. 서민의 일상들이 단편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102호 거주 주씨의 뜻밖의 고독사로 반전의 기회를 보인다. 감동은 부족했지만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우수상 차하는 광주의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경양방죽과 광주극장이라는 역사공간에 대한 접근방식은 좋았으나 극으로 소화하는 각 작가만의 창의성이 부족했다. 둘 다 광주지역 콘텐츠였다는 점에서 격려하고 싶다. 이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각색이나 연출자의 또 다른 노력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작품명 ‘집행’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다룰 때는 무대에 어울리는 장치를 해야 한다. 희곡이 되려면 알려진 이야기 외에 극적인 요소가 더 필요했다.

작품명 ‘돌고개에 달이 뜨네’는 동창회모임을 통해 개인적인 신상을 드러내는데 한 지점을 향해 집중해가는 힘이 약해 자칫 대사들이 잡담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아쉽다.

작품명 ‘일주’는 시간이 갈수록 등장인물을 이해하게 되는데 관객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부족했다. 속도감이 빠르고 재미는 있었는데 극의 전개가 좀 더 깔끔해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작품명 ‘어느 소녀의 봄’은 최근 뉴스의 인물이 된 일제강점기 정신대로 끌려갔던 양금덕 할머니의 서사적인 이야기와 다큐멘터리 형식, 음악을 통한 정서를 담았다. 작가는 주인공의 고통스런 삶의 역사를 그리는데 후반부에서 지나치게 장황하게 이끌어간다.

작품명 ‘제중병원’도 광주의 역사공간이다. 다만 극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스토리 라인이 분명하지 않다.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종과 단의 역할에 무리가 있다. 등장인물의 의지보다는 작가의 설계에 따라 캐릭터가 구축이 된 상황으로 보인다.

작품명 ‘봄맞이꽃’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다, 그것도 자칫 신파조로 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상징화된 여러 폭력들이 마지막에는 정의실현을 벗어나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이라는 결말이 눈에 벗어났다.